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08 / 무성서원

위성사진 / 평면도 / 단면도 / 배치도

건축물

제향공간 / 강학공간 /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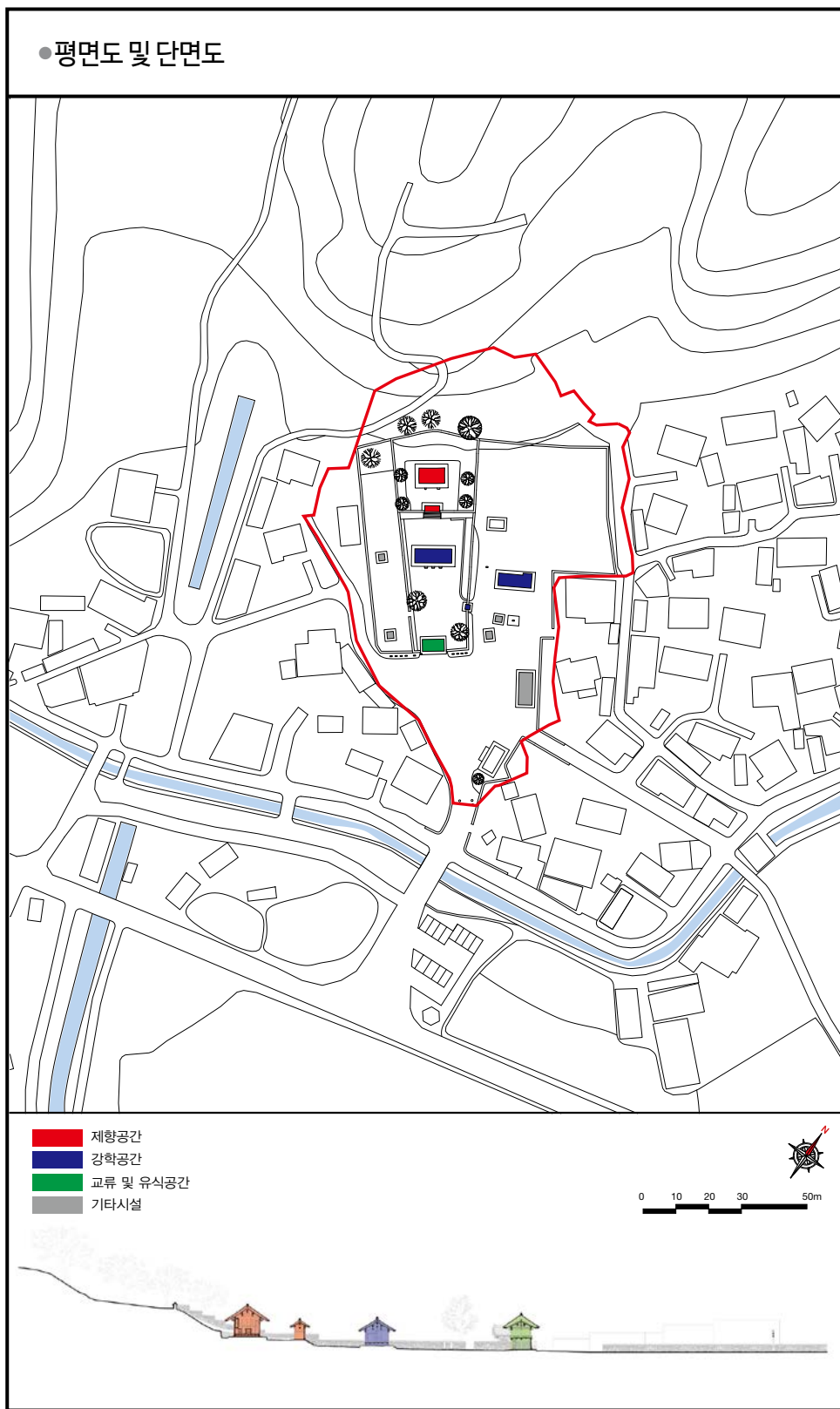
기록유산, 무형유산

고문서 / 책 및 책판 / 현판 및 기문 / 제향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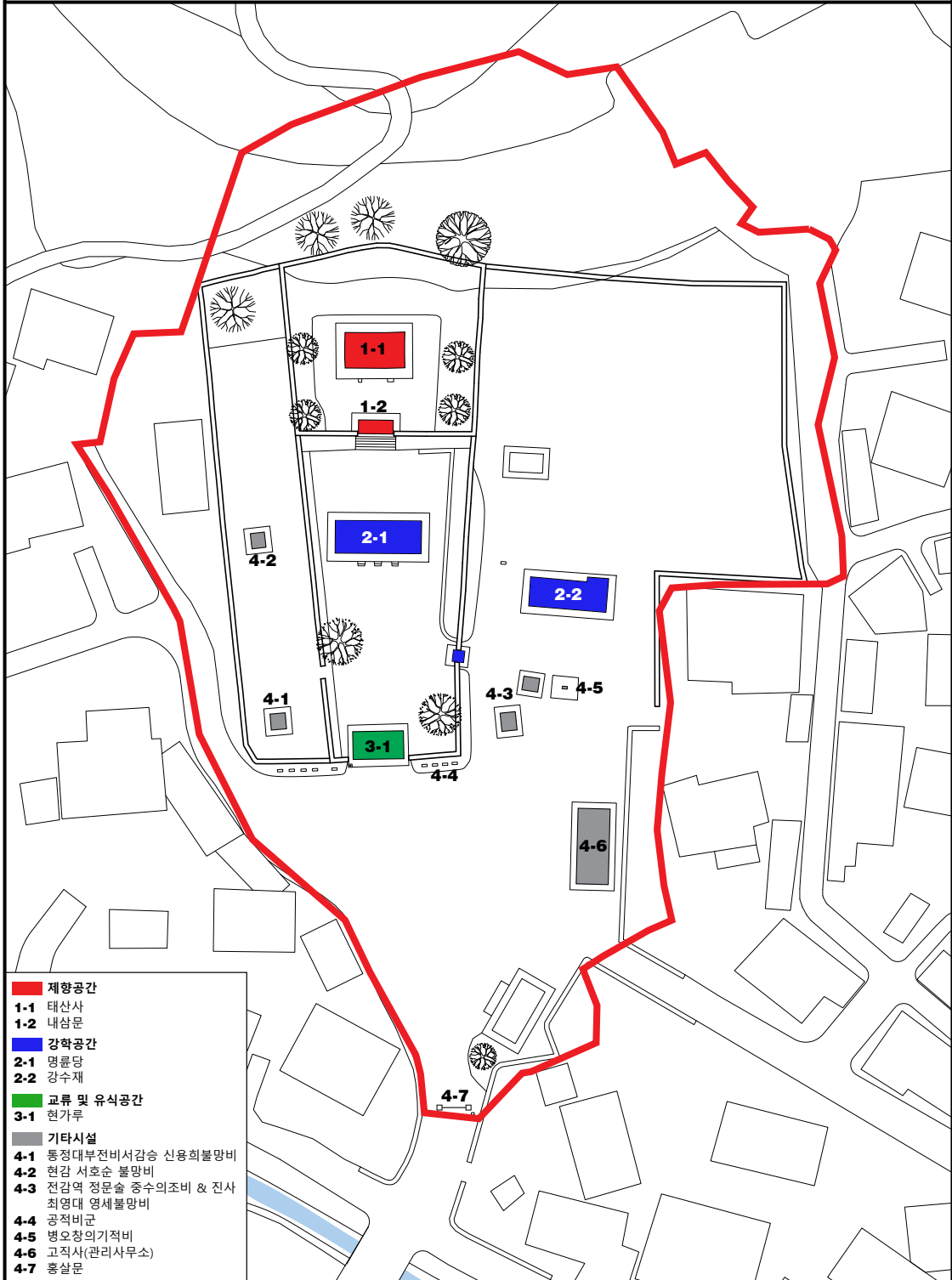
8. 무성서원

● 유산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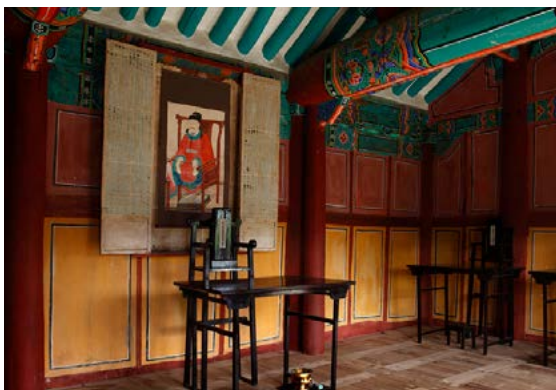


● 배치도



1) 건축물

제향공간



1-1

1-2

태산사(1-1)

제향인물의 영정 및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최치원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좌우에 신잠·정극인·송세림·정언충·김약목·김관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사우는 1884년(고종 21)에 중수한 것으로 정면 3칸과 측면 3칸에 홀처마 맞배기와지붕으로 되어있다. 이곳에서 현재까지 정기, 비정기 제향의례가 시행되고 있다.

내삼문(1-2)

최초 건립 시기는 미상이나 1615년(광해군 7) 태산서원이 건립되었을 때 내삼문도 함께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20세기까지 여러 번 중수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3칸 모두 두짝 여닫이 판문으로 단청 처리되어 있다. 제향공간의 진입문이다.

강학공간



1-1

1-2

강당: 명륜당(2-1)

서원의 강학 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1475년(성종 6) 향학당으로 건립되었다. 1825년(순조 25)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828년(순조 28) 중건되었다. 원장과 원임의 개인 연구실과 학생의 강학을 위한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으며, 처마는 흘처마이고 지붕은 팔작기와집이다.

재사: 강수재(2-2)

1887년(고종 24)에 세워진 것으로 이후에 몇 번의 수리를 거친 건물이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특기할 점은 여타 서원과 달리 강당과 구분되어 분리되어서 1동으로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강당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출발하여 서원으로 변화한 무성서원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3-1

현가루(3-1)

서원 내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누마루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이며 중층 팔작기와집으로 되어 있으며, 1층 바닥은 흙으로, 2층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외삼문 대신 1891년(고종 28)에 건립, 1924년에 수리, 1993년에 보수하고 1997년에 단청을 했다. 논어의 현가불철(絃歌不輟)에서 따온 이름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학문을 계속하다’라는 뜻이다.

기 타



4-1

4-2

4-3

4-4

통정대부전비서감승 신용희불망비(4-1)

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과 관련된 인물의 공적 등을 기록한 기념비이다.

현감 서호순 불망비(4-2)

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과 관련된 인물의 공적 등을 기록한 기념비이다.

전감역 정문술 중수의조비 & 진사 최영대 영세불망비

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의 공적 등을 기록한 기념비들이다.

공적비군(4-4)

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의 공적 등을 기록한 기념비들이다. 4개의 비각이 존재하고, 2개는 강당 서측, 다른2개는 동측 강수재 서남측면에 배치되어 있다.

기 타



4-5

4-6

4-7

병오창의 기적비(4-5)

1906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발생한 의병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비이다.

고직사(관리사무소)(4-6)

조선시대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현재는 관리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다.

홍살문(4-7)

서원의 입구를 알려준다.

2) 기록유산·무형유산

| 고문서, 고서, 책판 |



태산서원원유안 泰山書院院儒案

▪년대: 1618~1620년 ▪크기: 23.0×19.0

태산서원의 초창기 유생 명단으로 1618년(광해군 10) 원생 54명의 명단, 1620년(광해군 12) 유생안 88명, 원생안 109명의 명단이 함께 묶여 있다. 무성서원으로 사액 받기 이전의 자료로 가치가 있다.



무성서원원생안 武城書院院生案

▪년대: 1773년(영조 49) ▪크기: 28×13

1773년(영조 49)의 무성서원 원생 명단으로 앞에 무성서원은 문묘 종향인을 제향 한 서원으로 정원을 30명으로 정한다는 관찰사가 내린 공문이 첨부되어 있고 30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명단에는 거주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심원록·봉심록 尋院錄·奉審錄

▪년대: 1612(광해군 4)~1915년
▪크기: 35×15(대소부동, 6책)

1612년(광해군 4) 이후 300여 년 간의 무성서원 방문자들의 명단으로, 약 2,500여 명 정도의 방대한 인명록이다. 방문자의 이름과 자호(字號)를 적고 관직, 본관, 생년, 거주지, 일시, 방문 목적 등을 기록하였다. 무성서원의 학맥과 인맥, 정치적 성향을 가늠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모두 6책이 전해진다.



연액기사 延額記事

▪ 년대 : 1696년(숙종 22) ▪ 크기 : 36×14

1696년(숙종 22) 무성서원의 사액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집으로 유지춘(柳之春) 등의 청액 상소, 사액 결정 과정, 예관의 파견과 예물, 각읍의 부조와 재물 수입, 연액시의 제수, 이안, 환안제 축문, 그리고 사우 중수 등등의 제반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무성서원제물책 武城書院祭物冊

▪ 년대 : 1734년(영조 10) ▪ 크기 : 28×22

무성서원의 제향 시 관청에서 지원 공급한 제물의 목록과 수량을 기록한 문서이다. 향(香)과 폐백(幣帛)을 비롯하여 쌀과 생선, 고기, 밤, 대추, 술 등이 있었으며, 항목마다 지원한 기관과 수량을 표기하였다.



완문 完文

▪ 년대 : 1838년(헌종 4), 1845년(헌종 11)
▪ 크기 : 25×16, 21×18

무성서원의 경제 실상과 운영 모습을 보여주는 태인현에서 발급한 문서로 무성서원 전답을 팔아 여러 마을에 나누어 주고 이자를 받도록 한 내용이다. 절목(節目)에 마을별 분배 액수와 이를 증빙하는 관인이 찍혀 있다.





중수일기 重修日記

▪년대: 1783년(정조 7) ▪크기: 37×17

1783년(정조 7) 무성서원의 사우를 중수하고 최치원(崔致遠)의 영정을 옮겨 봉안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사우 중수에 참여한 기관과 인명, 여러 고을에 보낸 통문(通文), 쌍계사(雙溪寺)에서 영정을 가져오는 일련의 과정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무성서원지 武城書院誌

▪년대: 1884년(고종 21) ▪크기: 30.5×20.3

1884년(고종 21)에 목활자로 간행된 상·하 2권 2책으로 최치원의 유적과 유문, 제향인물의 사적, 서원 창건과 사액과정, 각종 원규, 제향, 강습례 자료, 건물 중수기, 그리고 각종 물목과 전답안, 원생록, 봉심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 이후의 재정비된 서원의 교육, 강학, 의례의 진면과 자료 집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계원필경집 桂苑筆耕集

▪년대: 1834년(순조 34) ▪크기: 30.5×20.3)

최치원(崔致遠, 857~?)의 시문집으로 20권으로 편차되어 있고, 여러 차례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본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19세기에 이르러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 중이던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홍익주(洪奭周, 1764~1845)의 집에 소장된 구본(舊本)을 얻어 교정하여 전주에서 1834년(순조 34)에 금속활자로 간행하였다. 서문에서 서유구는 간행과정을 약술하고 태인 무성서원과 합천의 가야사에 나누어 보관한 것임을 기록하였다.

| 현판 및 기문 |



무성서원 武城書院

▪년대: 1696년(숙종 22) ▪크기: 54×201

통일신라의 문장가이자 태산현감을 지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을 제향하는 무성서원의 사액 현판이다. '무성(武城)'은 통일신라 때 태인현의 옛 이름이기도 하며,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예악(禮樂)으로 다스렸던 무성현과도 같은 이름이다.



태산사 泰山祠

▪년대: 20세기 ▪크기: 50×190

무성서원 사우(祠宇)의 현판이다. 태산사는 통일신라 때 태산현감을 지낸 최치원의 생사당을 1483년(성종 14)에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강당중창기 講堂重創記

▪년대: 1828년(순조 28) ▪크기: 38.5×90

무성서원이 화재로 소실되어 1828년(순조 28)중수할 때의 기문으로, 제향인의 후속들이 힘을 합치고 태인현감 서호순(徐灝淳)이 적극 지원하였음과,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수록되어있다.



무성서원최선생 문집중간기
武城書院崔先生 文集重刊記

▪ 년대 : 1833년(순조 33) ▪ 크기 : 38×94

무성서원의 대표적인 제향인물이자 신라 말의 학자요 문장가인 최치원(崔致遠, 857~?)의 문집인 저술 『계원필경(桂苑筆耕)』 판각을 무성서원에 소장한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 『계원필경(桂苑筆耕)』은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전주감영에서 중간(重刊)하여 무성서원에 보관하였다.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 년대 : 1882년(고종 19) ▪ 크기 : 33.5×96.5

무성서원은 사액과 함께 국가로부터 노비 30명을 받아 지원받았으나 1868년(고종 5) 서원철폐령으로 소유권을 잃게 되자 태인현감 이정적이 서원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노비를 다시 복구시킨 과정과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무성서원지개간기
武城書院誌改刊記

▪ 년대 : 1884년(고종 21) ▪ 크기 : 30×80

1884년(고종 21)에 서원의 연혁과 각종 관련 자료를 모아 편집한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를 발간한 과정과 참여자의 명단을 적은 것으로 서원지의 발문을 썼던 정읍현감 기량연의 글이다.



강수재 講修齋

▪년대: 19세기 말 ▪크기: 26×63

무성서원의 강학당 현판으로 강수재는 무성서원 강습례와 관련되는 주요 건물이다. 18세기 초에 처음 건립되었으나, 1884년(고종 21) 지금의 모습으로 중수하면서 강당 앞이 아닌 좌측 별도 구역에 자리잡았다.



현가루 絃歌樓

▪년대: 1904년 ▪크기: 50×149

무성서원의 문루 현가루 현판으로 현가라는 이름은 공자(孔子)의 제자 자유(子游)가 노나라 무성(武城)의 수령이 되어 예악(禮樂)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 '현가지성(絃歌之聲)'이 들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무성서원 현가루기 武城書院 絃歌樓記

▪년대: 1891년(고종 28) ▪크기: 32×122

무성서원의 문루인 현가루 창건기문으로 전라도 관찰사이자 무성서원장인 김규홍이 썼다. 창건 내력과 '현가지성(絃歌之聲)'의 고사, 제향인물, 그리고 건립 당시 전라도 여러 고을의 지원과 참여사실을 적었다.

| 주련 등 |

강당

권규교훈남전고약(勸規交恤藍田故約)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향약을 따르니 남전의 옛 향약이니라

덕업일신효제충화(德業日新孝悌忠和)

덕업을 날로 새롭게 하니 효제충화요(효와 공손함과 믿음과 화합)

문예시습시서예악(文藝時習詩書禮樂)

문예 때때로 익히니 시서예악이요.

춘추강마경의사자(春秋講磨經義四子)

춘추를 강토하고 닦으며 사자(공자, 맹자, 자사, 증자)의 경서의 뜻을 알고

월삭참배향례남정(月朔參拜享禮南丁)

월삭(초하루)에 남쪽에서 향사의 예를 갖춰 참배하며

음양진퇴행단유교(揖讓進退杏壇遺教)

음하고 겸손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은

행단(공자님이 가르치던 곳이나 즉 공자의 가르침으로 해석)이 남겨준 가르침이라.

사당입구

성조 사액(숙종)의 은혜 사림의 수선(으뜸)이요.(聖朝額恩 士林首善)

| 제향의례 |

황토를 깔아 신도(神道)를 만드는 무성서원(武城書院)

전북 정읍에 위치한 무성서원은 최치원 등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태산서원(泰山書院)을 시작으로 하여 1696년에 무성(武城)으로 사액을 받았다. 지방관이 직접 향촌민에 대한 흥학(興學)을 목적으로 세워진 서원으로,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인 서원이다.

무성서원에서는 최치원의 영정과 위패를 함께 모시고 향사를 지낸다. 향사가 시작되면 준비한 제물을 가자(架子)에 담아 현가로부터 사우까지 중문을 통해 운반하는데, 제물이 통과하는 길을 신도(神道)라고 하여, 다른 서원과 달리 신도 양쪽으로 부정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황토를 드문드문 깐다. 그리고 일반 서원에서는 1보 1궤에 4번 4두를 진설하는 것과 달리, 이 서원에서는 4번 이외에 형염(形鹽)이라는 소금을 희생 옆에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황토를 깐 신도(神道)

무성서원에서는 외삼문에서 사당까지 제물이 통과하는 길 양쪽으로 황토를 깐다. 이것은 황토를 깐 안쪽이 신도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제물에 부정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당 중앙 칸을 통해 내삼문 중문으로 들어가는 제물

무성서원의 제기와 제물은 반드시 정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물을 가자에 담아 두 사람이 메고 황톳길을 따라 강당 건물의 어칸(중앙칸)을 거쳐 사우 중문으로 들어간다.

영정(影幀)과 위패(位牌)

무성서원에서는 주향위인 최치원의 위패와 더불어 영정도 함께 봉안하여 향사를 지낸다. 향교의 경우 공자 신위전에 공자의 영정과 더불어 위패를 모시고 석전을 지내고 있지만, 다른 서원의 경우 대부분 위패만 모시고 향사를 지낸다.

희생인 돼지 옆 형염(刑鹽)

무성서원에서는 다른 서원과 달리 희생인 돼지 옆에 형염(刑鹽)을 놓는다. 형염은 향교 석전에 올리는 제물의 하나이나, 희생 옆에 형염을 놓는 것은 집안제사의 적(炙) 위에 소금을 올려놓은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종헌 및 음복수조례 후에 재배하는 삼헌관(三獻官)

무성서원에서는 종헌 및 음복수조례 후에 삼헌관만 재배를 하고, 철변두(撤籩豆) 후에 헌관을 제외한 재위자들만 재배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삼헌 후에 헌관만 재배를 하거나, 음복수조례 후에 헌관 이하 모두 재배를 한다.